RAYMOND LABS

# D-Tox Revolution 21 의 해독작용과 치유반응

# 1.치유반응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치유반응이란 무엇인가?

치유반응은 한의학에서 명현현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대체의학에서 호전반응으로 논의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는 인체순환계나 면역체계등이 그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현현상(Flare-Up) 또는 호전반응을 포함하는 치유반응은 천연약재가 인체내에서 작용하여 중추신경, 자율신경 및 신체면역기능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개선 시켜 인체를 관활하는 생체조절기구들을 건강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과도기적 반응들이다.

즉 치유반응은 우리의 몸이 건강체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체질이 바뀌는 신체의 조정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유반응은 그 사람의 체질과 음식선호도, 과거 병력의 연관관계, 생활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인체내 노폐물과 독성물질로 인한 독소가 어느정도 쌓여 있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또한 치유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없는 건강체질의 사람도 있으며 치유반응이 길게 나타나는가 하면 짧게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과거나 현재에 오랜 지병으로 인해 항생제를 비롯하여 진통제를 많이 복용한 경우라면 치유반응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반응은 인체나 자연치유력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몸에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또한 치유반응은 인체의 만성적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중요한 치료과정이자 완치를 위한 치료단계이다.

# 2. 해독작용과 치유반응

## 해독과정에서 치유반응이란?

해독과정에서 치유반응이란 해독요법으로 대표되는 대체요법의 치료를 받게될때 질병을 발생케 하는 만성적 독소, 그리고 노폐물에 의해 기능역활이 약해진 인체의 여러 조직과 세포들이 해독작용 천연약재와 반응한 까닭에 세포에서 빠져나온 독소와 노폐물이 증가하고 또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현상이다.

즉 치유반응은 천연약재성분으로 인해 인체가 새로운 세포로 복구되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몸에 축적되어 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모든 배설기관을 통해 배설 또는 분비될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해독과정에서 치유반응은 천연약재성분이 혈액을 정화시키고  인체의 생리작용에 관여하여 자연치유력이 회복되고 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된 결과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 내기 위해 나타난다.

해독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몸의 자기치유능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비결은 몸안의 독소를 제거히는 시스템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최선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신체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시적 현상 또한 치유반응 (명현현상, 호전반응)으로 분류된다.

우리 몸에 유입되어 누적된 유독물질, 노폐물등은 우리 몸안에서 독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온갖 독소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기능을 가로막게 되고 그 결과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가져옴은 물론 순환계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인간이 태어날때 부터 부여받은 자연치유능력 그중에서도 신체의 자연해독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자연치유능력, 특히 자연해독능력 회복은 건강회복의 근간이 된다.  사실상 인간은 이 자연해독능력의 상실로 면역력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다.

# 3. D-TOX REVOLUTION21 의 체험사례 및 치유반응에 대한 원인 설명과 이해

## (1) 잦은 방귀와 격한 냄새

잦은 방귀와 방귀의 격한 냄새는 노폐물과 숙변들로 막혀서 느리게 활동하던 대장을 비롯한 신체 장조직 계통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대장이 개선중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치유반응이다.

즉 몸안에 독소가 쌓여 신체조직의 불균형 증상으로 시작된 장 문제를 시작으로 과체중, 오랜 피부문제, 각종 알레르기 등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현상의 일부이다.

잦은 방귀와 격한 냄새는 장 속에 정체된 노폐물과 숙변이 배출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야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치유현상이다.

본 제품의 섭취로 장 속에 정체된 숙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나 독소가 격한 냄새를 동반하여 배출되면서 잦은 방귀와 함께 격한 냄새를 풍긴다.

## (2) 변비

해독의 기본은 대장을 치료하여 변비를 고치고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토록 하므로서 인체내의 독소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독소작용이란 독소가 배출되지 않은채 대장등 순환계에 계속 남아서 재흡수 되거나 세포와 조직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방해하고 신체기능을 파괴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D-Tox 21 의 복용으로 인체의 대장은 대장으로 유입된 점액과 함께 다양한 노폐물이 섞인 숙변을 함께 배출하게 된다. 이 과정은 두가지의 생리적 특징을 수반하는데 그 하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느끼는 변의이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당혹스러울 만큼 크게 증가한 대변의 양이다.

따라서 D-Tox 21 의 복용자는 변의를 느낄때마다 하루에 최소한 2-3 번의 용변으로 대장에 쌓인 노폐물등을 배출해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두뇌에는 "배변은 아침에 한번" 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입력되어 있어서 설령 재차 변의를 느낀다 해도 우리의 의지가 이를 무시해 버리게되고 우리의 생활습관과 직장환경 때문에 쉽게 대변을 볼 욕구를 갖지 못한다.

변비문제의 첫번째 해결관문은 변의를 느끼는 것이고 그 변의에 맞춰 배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욕구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변비문제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변에 대한 그 강한 의지와 노력은 눈물겹도록 많으나 변의를 느끼지 못해 화장실에 그토록 오래 앉아 있어도 배변에 실패하고 만다.

그런데 D-Tox 21 은 제품 특유의 해독작용으로 복용하자마자 몇시간 또는 아무리 늦어도 2-3 일 이내에는 지속적으로 변의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 고마운 변의를 무시하지 말고 곧 배변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실천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적지않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게된다. 원래 변비는 변비가 된 원인이 존재한다. 특히 치유반응으로서의 변비는 대개 그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며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비를 가져온 원인을 또한 반드시 수반한다.

**첫째**, 습관성변비로 변의를 참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생활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는사이 습관성 변비가 된다.

**둘째**, 경련성변비로 정신적인 긴장에서 오는데 정신적 긴장이 이유가 되어 장을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게 되므로서 장이 경련을 일으켜 변의흐름이 지연되고 방해받는다. 이 과정에서 변의 수분이 장벽으로 흡수되어 딱딱하게 굳어진 변으로 가늘거나 혹은 단단하게 뭉쳐서 어렵게 배설된다.

**세째**, 이완성변비로 중장년이상의 사람들이 장의 기능저하나 내장자체가 늘어져 배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네째**, 육류위주의 생활습관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이유에서 변비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평소에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변의를 참지말고 배변하는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한다.

즉 생활습관과 식사습관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우리의 몸은 음식물이 위 안으로 들어오면 결장에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 내용물이 계속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변의를 느끼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변의를 참거나 운동부족 또는 음식물속에 식물섬유질 및수분이 부족하면 배설에 문제가 발생하고 종국에는 만성적 변비가 되고만다.

## ➔그렇다면 D-TOX 21 의 복용으로 나타나는 치유반응으로서의 변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첫째,** 배변습관을 아침식사후로 하되 변의가 느껴지면 언제든지 참지말고 배변에 힘쓰되 최대한의 변의와 배변을 위해 화장실에서라도 5-10 분 정도 제자리뛰기를 해보는 것이다. 이때 발뒤꿈치가 땅에 닿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편하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천천히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이 좋다.

**둘째**, D-Tox 21 의 복용후에 그 작용으로 대장으로 유입된 많은 양의 노폐물등 내용물은 수분이 크게 결핍되어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대변이 장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몸속의 노폐물은 배변과 소변, 땀을 통해서 배출시키고 제거된다.

**세째**, 배변이 매끄럽게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식물성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으깬 호도를 꿀에 개어 먹는다든지 땅콩이나 들기름, 참기름을 하루에 2-5 회 1 수푼정도 먹는다면 변비해결에 도움이 된다.

변비를 조절하는 유화제 기능으로서는 북미와 유럽에서 선호되고 있는 Psyllium Husk 파우더를 저지방 우유나 Soy 밀크에 한 숟가락씩 하루에 1-2 회 정도 식전 30 분 또는 공복에 마시면 변비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네째**, 섬유질 식품이나 변비에 좋은 쥬스를 마시는 방법이다. 무청 또는 고구마쥬스, 매실주를 공복에 1-2 주 마시는 것, 살구쥬스는 변비에 큰 효험이 있다. 섬유질 식품의 섭취를 위해서는 무말랭이, 미역, 시금치, 말린 표고버섯등이 추천된다.

D-Tox 21 의 복용후 치유반응으로서 변비가 발생하면 변의는 자주 그리고 크게 느껴지다 못해 장이 틀고 아랫배가 이프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큰덩어리로 뭉쳐진 많은 양의 변이 직장을 통해 빼져 나가지 못하면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이럴때는 처음 1-2 회 정도는 관장을 하여 배변의 길을 터주는 것이 현명하다. 관장이 좀더 필요하다면 몇번을 더 시도하는 것도 해독과정에 더없이 유익할 것이다.

D-Tox 21 의 복용후 변비가 치유반응으로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본 제품의 성분이 소화기관을 거쳐 간의 분비기능, 결합기능, 대사기능을 거치는 동안 혈액의 온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혈액온도의 상승으로 인체의 온도를 높이지는 않지만 소장과 대장에 수분의 공급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대장의 내용물이 굳어져 배변장애를 일으키고 변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혈액의 상승은 찬 공기 알레르기를 완치시키며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놀라운 치유효과를 가져온다.

## (3) 구토와 설사

치유반응으로서의 구토현상은 간에서 많은 담즙이 분비되고 방출되어 장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발생하게 된다. 위는 위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산성위액을 유지해야 하지만 알킬리성인 담즙이 유입되면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명현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위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활성화시킨 독성물질을 내재한 담즙을 음식물과 함께 구토하거나 또는 설사로서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치유반응이 나타나 D-Tox 21 의 복용자가 구토나 설사를 하게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막아야 한다.

구토증세가 치유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소화기 문제, 저혈압, 간기능장애가 원인이다. 특히 구토증세는 간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치유반응으로 나타난다. 구토증세나 설사는 본 제품의 해독작용으로 인한 일종의 회복반응이다.

즉 소화기계의 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배출 시키기 위한 회복반응이다.

특히 설사의 경우, 평소 위장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이 이물질을 빨리 제거하기위한 치유반응으로 나타난다. 설사는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전환되는 치유과정에서 탁한 피가 전신의 혈관을 순환하게 되고 인체는 이것을 배출하기위해 수분을 끌어 모으기 때문에 발생되기도 한다.

## (4) 혈변

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질, 간경화증이 있으면 치유과정에서 장속의 병원인이 해소되면서 대변에 피가 섞여 배설할 수 도 있다. 장내에 쌓인 노폐물과 숙변등 독소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병소부위의 병든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와 섞여 대변으로 배설되어 혈변이 된다.

특히 변비로 인한 치질은 건강한 혈액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치질 밑부분부터 돋아나 병든세포덩어리인 치질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출혈된 피와 함께 대변으로 배출 되므로 혈변이 된다.

이러한 치유반응은 병증부위의 독소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 (5) 고열

대체적으로 인체에 정상이상의 고열은 세균을 잡기위해 백혈구가 맞서 싸우거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다.

우리 몸에 해독작용이 시작되어 치유가 시작되면 자연치유능력이 활성화 되는등 치유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이때부터 우리 몸의 세포조직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신체조직에서 독소를 방출하게 되면 우리의 간은 많은 독소들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고열은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독성물질을 배출해 주고 악성조직과 싸우는 과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고열은 특히 고혈압, 수분부족, 신장염,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 (6) 소변의 탁함

간세포에는 시토크롬 P450 시스템이라는 효소군이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지용성 분자를 수용성 분자로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그 화학반응은 간해독 1 단계와 2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1 단계에서는 중화시키고 있는 독소구조를 바꿔 '중간대사산물'로 만든다. 간혹 이 대사산물이 원래의 독소보다 독성이 강해질때도 있다. 그러면 간해독의 2 단계로 긴급히 돌입한다.

2 단계 해독작용에서는 독소의 성질을 중화시키고 비활성화시켜 수용성 산물로 변형 시킨다. 그래야 혈액으로 이동한후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신장세포는 그 산물을 혈액에서 포획하여 마침내 소변의형태로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소변은 탁해지고 악취가 발생하며 거품이 이는 현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치유능력과 신체기관의 기능이 회복되어 세포속에 쌓여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서 거품을 동반하거나 냄새가 진한 소변이 된다.

## (7) 근육통과 피로감

우리 몸의 노폐물, 독소물질이 배출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혈액에 녹아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시킨다.

우리 몸안의 냉기를 없애주면 인체의 자연시스템이 회복되어 면역력강화와 각종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내에 정체된 각종 노폐물과 독성물질은 체온저하의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피가 탁해져 어혈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이 몸안의 냉기가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신체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육류위주의 식사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동물성지방이 분해되지 않은채 우리 몸안에 축적되어 독소가 발생하고 혈액이 탁해지며 냉기가 돌아온다.

D-Tox 21 을 복용하게 되면 간의 제반기능이 회복되고 그 기능을 거치면서 혈액이 정화되고 냉해진 혈액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로인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계는 새로운 온기와 기존의 냉기가 부딪히고 교차하며 서서히 우리 몸안의 냉기를 내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에 통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는 치유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 (8) 두통

두통은 우리 몸이 과도한 독성을 배출할때 나타나는 치유반응이다.

우리의 회복되고 있는 면역체계가 독성을 가진 조직을 공격하여 상당량의 독성물질이 혈관으로 방출되고 그리고 혈액속에 방출된 독성물질은 다시 간에 모이게 된다. 간에 축적되어 있던 그 독성물질들은 신체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소장과 대장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독성물질이 간에서부터 직장과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변비로 인해 대장에 머무르는 긴 시간 동안 독성물질 일부가 다시 우리 몸안으로 재흡수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때 일시적으로 뇌 신경계는 자극을 받으며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인해 우리는 두통을 느끼게 되나 해독작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 또한 치유반응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또는 수분부족이나 약한 위장기능으로 소화가 잘 안될때도 두통이 오고 해독과 변비의 연관관계를 통해서도 두통이 발생된다.

## (9) 입맛의 갑작스런 변화

D-Tox 21 의 섭취후 1-3 주안에 음식맛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짠 음식은 더욱 짜게 감각되고 설탕이나 쵸코렛같은 단 음식은 더욱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면역력과 자연치유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염분만을 섭취하여 그 염분농도를 유지하도록 식생활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인의 음식에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식탁위에는 언제나 소금통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음식에 습관적으로 소금을 넉넉하게 첨가시킨다.

그 결과 서구인을 비롯하여 먹고 살만한 나라의 사람들은 비만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각종 암같은 성인병에 시달리며 평생을 병원신세지며 살아간다.

D-Tox 21 의 가장 두드러진 해독작용의 특징은 진통제나 신경안정제 및 약물중독을 비롯한 염분이나 설탕, 가공조미료와 같은 화학적 성분들에 대한 해독효과이다.

본 제품의 섭취로 간기능의 극대화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 몸의 지나친 염분이나 당분(설탕) 그리고 화학적 가공조미료 성분도 인체내의 독소물질로 분류되고 해독대상 범주에 포함되어 다른 독소와 함께 배출된다.

우리 몸이 이와같이 빠른 시일내에 해독과정을 거쳐 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소금이나 소금이 많이 첨가된 음식은 너무 짜고, 설탕이나 지나치게 단 음식들은 너무 달게 감각되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 건강체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예를 들자면, 피자 한판을 놓고 가족 몇이 모여서 함께 먹게될 때에 다른 식구들은 그저 맛있게 먹는데도 본 제품을 섭취하여 과다염분으로 부터 해독되어 몸이 정화된 사람은 다같이 먹는 똑같은 피자를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다며 온갖 불평과 역정을 쏟아낸다.

***이러한 미각의 변화는 얼마나 행복하고 바람직한 치유반응인가!!!***

## (10) 얼굴과 다리의 부종 (붓기)

D-Tox 21 의 섭취후 인체에 필요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소금)이 빠져 나가면서 부종이 생기나 혈압이 내려가고 통증이 줄어든다.

신장기능이 좋지않은 사람은 혈액속에 수분이 더 정체되어 있어서 얼굴이나 다리 부종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신장기능이 정상으로 되기전에 발생되는 과도기적 치유반응으로서도 얼굴이나 다리가 붓게된다.

즉 이런 부종현상은 본 제품의 섭취로 체내 세포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수분 부족현상이 해소되고 신장의 수분대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 직전에 흔히 보게되는 치유반응 현상이다.

신장도 인체에서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한다. 신장의 병든 세포조직으로인해 혈액의 정화능력이 부족한 신장, 방광계통의 환자들은 치유과정에서 신장기능이 잠시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수분대사 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얼굴과 다리의 부종(붓기)이 나타난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부위에 일시적으로 부종이 올 수 있다.
또한 얼굴이나 다리의 부종은 본 제품의 섭취결과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거나 호르몬 대사균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 (11) 어지러움과 머리무거움

혈액순환기능 장애가 있거나 신경쇠약자에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다. 해독과정을 통해 병든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탁하고 깨끗하지 못한 혈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혈액의 장애때문에 뇌핼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양이 적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때 일시적으로 어지러움과 머리무거움이란 치유반응이 나타난다.

## (12) 나른함과 졸림

병든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는 간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뇌와 시신경에 에너지 및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되는 반응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산성체질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 (13) 위장부위의 통증

소화기 계통은 인체의 여러 장기 중에서 외부로 부터 섭취된 물질들을 일시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칠고 자극적인 온갖 음식들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쉬지않고 그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 까닭에 많은 영양분이 소모되고 많은 혈액도 필요하게 된다.

거친 음식의 소화과정과 유해물질들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점막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리고 이 상처의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 속쓰림과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위장기능이 약화되면 간장의 기능저하를 수반하면서 간장의 병든세포가 떨어져 나가 독소를 담지한 혈액이 되어 위장으로 유입된다. 그러면 인체는 이들을 배출하고 장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구토증세나 위장장애같은 위장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약화된 위장의 점막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서 일시적으로 더욱 악화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나 이는 위장장애가 개선되고 소화기계의 질환이 치유되는 현상이다.

해독과정에서 위가 약해져 있던 사람들은 가슴부위가 답답하고 미열이 따르며 음식 소화에 심한 장애를 느끼게 된다.

## (14) 오한

치유의 과정중 혈액속의 면역체계가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와 싸우면서 자연스레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들고 그때문에 체온이 떨어져 오한(추워서 떨림)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탓에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는 현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심한 오한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 (15) 감기와 몸살

면역력이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과정중에 감기증세와 몸살같은 치유반응을 주기적으로 몇차례에 걸쳐 경험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몸이 건강체로 회복되기 위한 치유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실상 인체는 감기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기도 한다. 해독의 과정을 거쳐야만 자연치유력이나 면역력이 회복된다고 할때 감기와 몸살 또한 해독에 의한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감기와 몸살은 이플만큼 아프면 거의 자연치유가 이루어 지는 것처럼 또한 해독과정에서도 감기와 몸살은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고 면역체계와 자연치유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단계로 보아야 한다.

우리 몸이 나으려고 아픈것 처럼 해독과정에서의 감기와 몸살도 해독이 되기 위해 따라오는 자연스런 치유반응이다. 몸살은 때로 치유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액순환장애나 소화흡수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 (16) 가슴통증과 울렁거림

약화된 폐의 기능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잠시 줄어들고 호흡이 빨라지거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갑갑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흉부 압박감과 흉통을 함께 경험하기도 한다.

흉통은 해독을 위한 치유과정에서 폐와 심장이 강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 흉통을 느끼는 시간은 길지 않으며 많은 경우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 (17) 갈증

해독작용으로 자연치유력이 어느정도 회생되면 장기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우리 몸속의 온갖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목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 (18) 눈의 충혈

보통은 간의 혈액량 조절기능이 약해져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가져와 눈의 이상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눈은 다른 부위에 비해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

해독작용으로 인해 간기능이 회복되면서 혈관안에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되고
이 과정에서 조직이 약해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눈에 영향을 미쳐 눈꺼풀이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을 갖거나 충혈과 눈곱이 생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 (19) 피부문제

해독요법이 시작되면 인체내에 적체되어 있던 노폐물과 독소들이 땀을 통해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각종 피부문제를 유발시킨다.

그것은 활발한 대사작용을 통해 피부로 올라온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이 땀과 함께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잠시 잔류하면서 두드러기가 돋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등 피부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문제를 수반하면서라도 해독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치유반응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20) 여드름이 심해짐

기본적으로 여드름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털구멍의 피지선이 자극받아 피지선이 커짐과 동시에 털구멍이 지방이나 각질로 메워지게 되고 이 털구멍을 막는 지방덩어리에 세균에 의한염증이 일어나 생겨나는 것이 여드름이다.

해독작용을 통해 세포의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피부를 통한 배출작용이 활발해 진다. 그때문에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좀더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D-Tox 21 의 섭취로 간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한 지방배출이 가속되어 치유반응이 발생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팽팽하고 탄력있는 아름다운 피부, 깨끗한 피부로 확실하게 개선된다.

해독작용이 시작되면서 얼굴피부가 까칠해지고 거칠해지는 것도 대사기능이 회복되어 오래된 각질을 빨리 떨어뜨리려고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치유반응이다.

여드름을 비롯한 얼굴피부는 간기능, 폐기능, 호르몬 대사기능을 모두 회복 시킬 수 있는 D-Tox 21 의 섭취와 같은 가장 확실한 해독작용을 통해서만 예쁘고 아름답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